

# 다윗 인생의 빛과 어두움 - 사무엘하

사무엘하 22:44-51, 마테복음 1:1

정운돈 목사님

## [요약]

서론 : 사무엘하의 특징

1. 사무엘하 전체의 내용

2. 다윗 인생의 빛과 어두움

(1) 어두움 : 잘못된 각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범죄, 인구조사를 한 불신앙

(2) 빛 : 목동 시절의 믿음, 골리앗을 꺾은 믿음, 사울 압살롬을 품은 그릇, 회개 결론 : 다윗이 받은 축복과 그 이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귀가 잔지러우실 것 같지만, 각인된 게 있어서 이야기한다. 우리 삼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너희 아버지는 참 피가 많은 것 같다." 조카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나는 생각할 때, '참 속이 좁으시구나.' 머리는 천재인데 마음이 좁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너무 바보같아요. 이권이나 자리 같은 것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들, 아버지가 한 번 놀러 버리면 죽어버릴 것인데,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그러셨다. "우리가 양보하는 게 너희한테 좋거든." 그래서 끝까지 양보하셨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후대들에게 주셨다. 우리 삼촌은 우리 가족들, 우리 후손들을 지금도 시기 질투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은 정략, 계략, 꾀를 쓴다. 그러나 누가 이기는가? 하나님 앞에서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전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 후대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응답을 받게 된다. 사무엘하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려는 언약의 메세지를 오늘 우리는 발견하려고 한다. 사무엘하에 이런 내용이 가득 나온다.

## 서론

사무엘하는 24장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다윗왕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제목을 '다윗 인생의 빛과 어두움'이라고 지었다. 다윗이 정말 빛나는 모습, 믿음을 보여주는 인생 여정의 장면이 많이 있는가 하면, '아, 다윗이 왜 이랬을까. 정말 나쁜 XX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장면도 많다. 그래서 사무엘하의 특징을 보면, 드라마틱한 다윗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다. 나도 예루살렘에 가 봤는데, 궁전에서 내려다보면 집이 보인다. 우연히 남의 아내를 보고 취해서 임신까지 시켰다. 순간적인 실수인데,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 자기 오른팔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소수의 사람을 적진으로 보내라고 한다. 이유가 뭐가?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다.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다윗이 모략을 쓰는 줄 모르고 우리아는 충성스럽게 싸우다 죽는다.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아내의 임신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렀다. 휴가를 주면서 술을 대접하고 집에 가서 사랑하고 했다. 그런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동료와 부하들이 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 편히 집에서 쉬 수 없다고 뱀에서 자 버렸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이미 사단이 들어갔다. 자기 것을 취하기 위한 머리가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써서 적진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저런 사정은 상치받다고 메세지 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차피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다. 1907년 한국의 부흥이 언제 일어났나? 장로님 한 분이 자기가 첩을 둔 것을 고백하고 회개했는데, 그때부터 모든 이들이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드러나야 고칠 수 있다. 내 모습을 다 내어놓고 치유받아서 성경대로 쓰임받기를 축원한다. 노아, 아브라함, 다윗의 모든 약점과 허물이 다 드러났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남의 약점을 볼 때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면서 기도해주고 감싸주어야 한다. 그 약점을 잡아서 죽이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이 도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감춘다고 해서 언제까지 감춰지겠나. 주님 앞에, 교회 앞에 겸손히 다 내어놓고 치유받으시기 바란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위대한 인물 다윗의 약점을 성경에 다 기록했지 않나?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나의 잘난 모습, 그걸 숨기겠다. 거짓된 모습으로 내가 최고고 너희는 틀렸다 하는 영적 상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해서 다 죽인다. 다 지옥에 보낸다. 옳은 말을 하다가 자녀를 망친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주역이 되기를 축원한다.

사무엘하에는 이스라엘 왕조의 흥망성쇠에 나타난 배신, 반역, 근친상간, 전쟁과 살인, 간교한 계략과 책략이 가득하다. 이브넬이라는 인물이 나온다.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 그런데 이 이브넬이 왕의 첩을 건드렸다. 왜 그랬느냐 했더니 이브넬이 화를 낸다. "네가 누구 덕택에 왕이 되었는데 나를 이렇게 모욕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세운 왕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간다. 자기가 세운 왕은 자기 뜻대로 해야 하는데 안하니까 죽여 버리는 것이다. 내 뜻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세운다. 이게 악한 인간의 본성이다.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악한 본성, 하나님을 떠

난 모습을 바꿀 수 있다. 가까운 친척이, 동생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계속 반대하고 길을 막는다. 잘못하면 그것을 덮어줘야지, 대중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하고 말했다. 좋은 의도인 것 같지만, 결국은 거기 있지 못하도록 자르더라. 그래서 동생을 폐인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갔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만들어놓은 곳인데, '우리가 다 양보할테니 동생을 세워 줘라.' 새벽 네 시까지 이야기했다. 정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기, 질투였다. 하나님이 형제 중 하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나머지 형제들을 보호하려고 주신 것 아니겠는가? 그것을 가지고 남을 깔아뭉개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혹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란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하다. 나는 사무엘하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서 새롭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렇구나. 다 나와 같은 모습이구나. 다윗도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잡아 주셨구나. 처음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래야 그래야 하는데, 조금 성공한다고 예배를 무시하고, 조금 안다고 교회를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해서 WCC, 종교다원주의로 가는구나.' 인터넷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녀 본 사람들이다. 조금 안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한국이 지금까지 복을 받은 것은 교회, 성도 때문이었다. 한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한국의 유일한 희망은 성도 여러분이다. 한국의 유일한 희망은 종교가 아니라 교회다. 한국의 모든 분야의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 조금 부족했다. 다윗처럼 부족했다. 그러나 모든 분야의 희망이 기독교인이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어떤 분이 그것을 신기하게 다 찾아 놓았더라. 과학, 예술, 정치, 모든 분야에서. 그분들이 조금만 더 깨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분들이 역할을 잘 하고, 우리 후대가 그런 인물이 되도록 말이다. 나는 삼국지나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서 느꼈다. 내용이 뭐가? 싸웠다. 모략을 썼다. 이겼다. 그리고 죽었다. 진리가 없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렇게 지혜롭고 능력있고 용맹하고 덕 있는 사람도 결국 지배자가 되지 못했다. 나는 삼국지를 읽을 때마다 뒤끝이 안 좋았다. 유훈이 통일해 야지, 간신배 조조가 잘 되지 않나? 세상의 지식, 인문학, 과학은 답을 주지 못한다.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원래 한 권이었는데 편이상 네 권으로 나뉘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리더들이 특히 사무엘하를 읽어봐야 한다.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지식과 케이스가 이 속에 들어있다. 세상에 리더십에 관한 책, 성공에 대한 책, 명언집이 많이 있지만, 과연 이것을 따라가도 되는가,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적극적 사고방식이 유행했지만, 결국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망했지 않나?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 하면서 주식투자하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성경말씀만이 진리다. 세상에 많은 책이 있다. 나는 여러 책을 읽으면서 느꼈다. 이 책은 여기에서, 저 책은 저기에서 배긴 것이었다. 하늘아래 새 것이 없다. 세상의 지식은 초등학교 수준이다. 성경밖에 없다. 우리 램프들이 절대 속지 말기를 축원한다. 대학에 들어가면 교수, 박사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많이 아는가? 제대로 된 교수님이라면 '내가 뭐 아냐' 하고 답할 것이다. 그런 지식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 대학이 가르치는 것은 학문이지 진리가 아니다. 대학은 진리의 전당이 아니다. 진리의 전당은 교회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 이들이 읽어야 한다. 정략, 줄서기,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전략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도하는 정치인이 나올 때 우리나라와 세계는 희망이 있고, 흑암은 꺾이게 될 것이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겠다.

## 1. 사무엘하 전체의 내용

- (1) 심하1-7장은 사울왕 가문의 몰락과 다윗왕 가문의 성장, 응답을 이야기한다.
- (2) 심하8-10장은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다. 블레셋, 모압, 소바, 수리아, 모든 싸움에서 이겼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만사형통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
- (3) 전쟁은 절실한 문제다. 죽고사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문제가 아니다. 모든 싸움에 승리하고 왕궁에 돌아왔을 때, 심하1장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범죄를 하게 된다. 쫓겨다니고 어려운 전쟁 때는 문제가 아니었다. 다 승리한 후가 문제였다. 3천 제자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빛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나중에 대항교회가 되는 게 문제다. 손가락질을 다 당하고 있지 않나. 인천의 큰 교회에서는 개척교회 앞에 가서 전도지를 돌린다고 한다. "이런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저희 교회로 오세요." 우리도 혹시 작은 교회, 상가 교회, 지하 교회를 무시하고, 우리교회 생각만 하고 있는 않은가. 여러분, 3천 제자, 3천 제자가 세워져도, 겸손하게 선교 현장을 돕고 미자립교회를 돕는 일에 올-인 해야 한다.
- (4) 그 결과 12-20장까지는 징계를 받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온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불드신다. 고치시고 때리시면서까지 바꾸신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혹시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니 하나님은 끝까지 불 들어 주시고, 우리가 승전가를 부를 그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 (5) 그래서 심하22장은 다윗의 승전가다.
- (6) 심하23장에는 다윗을 도운 많은 군대 장수들이 나온다. 창 하나로 800명을 죽인 장수도 있다. 37명의 대단한 장수들이 나오는데, 이들 중에는 이방인이 많았다. 전쟁을 하고 나서 적군의 장수들이 감동해서 우리 편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한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한다. 불신자 중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참사랑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모습을 버리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장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3천 제자가 일어날 것이고 세

계복음화가 되어질 것이다.

(7) 마지막으로 삼하24장에는 인구조사를 해서 징계를 받은 장면이 나온다.

성령인도를 받아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정리한 사람들의 중심이 여기에 있는 것 같다.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할 것 같지 않다. 그런데 막판에 승전이 다 불려놓고는 다른 장수 명단을 다 올리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아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 다윗 혼자 잘난 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삼하23:39을 보라. 헛 사람은 히타이트인을 말한다. “헛 사람 우리아라. 이상 충수가 37명이었더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증직자들은 정말 이런 장수와 같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인물들이었다. 이것이 그것을 상징한다. 그런데 하필이면 마지막 장수가 우리아다. 다윗이 죽인 인물이다. 결국 다윗이 승리한 것은 다윗 스스로가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다.

## 2. 다윗 인생의 빛과 어둠

두 번째로, 다윗 인생의 빛과 어둠을 말씀드리겠다. 이것을 살펴보면 신약적인 깨달음을 발견하려고 한다. 빛과 어둠은 잘 한 일과 잘못 한 일을 말한다. 링컨 대통령이 굉장할 것 같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미국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한 책을 봤더니, 링컨은 남북 통일을 한 후 인디언을 멸종시키는 일에 남은 군대를 쓴다. 새로운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처참한 결과를 남겼다. 공과가 다 있게 마련이다. 나도, 성도들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존경할 부분과 비난할 부분이 있다. 위대한 면과 닳지 말아야 할 면, 신앙적인 면과 불신앙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양면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실수하게 된다. 우리 체질이 율법적이기 때문에 자꾸 남의 약점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을 닮게 된다. 여러분, 장점은 닳고, 단점은 지나치게 비난하지 마라. 다윗처럼 불신앙과 율법에 빠지지 않게 하라. 이것을 기록한 것은 정당화한 게 아니다. 다니엘, 요셉, 에스더처럼 약점이 없고 흠이 없는 인물도 있었다. 당연히 우리가 다윗처럼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때에 영육간에 너희가 흠과 티가 없이 보전되기를 바라노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윤리적인 기준을 높게 정해 두었다. 생각을 그렇게 맞춰 두어야 한다. 진교등을 못 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아이큐가 모자란 게 아니었다. ‘내가 진교등을 꼭 해야지’ 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강남의 유명한 강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써라. 그리고 붙여라. 그리고 반복해서 봐라. 그러면 된다.’ 성격적이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은 옳다고 본다. 어떤 부분을 마음에 담고 반복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도전하라. 좌절하지 말고 꿈을 크게 가져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라. 글로 써서 붙여라.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씩씩하라. 그래서 다윗과 같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왕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란다.

(1) 다윗은 단순히 신앙적인 인물이었다는 것만은 아니었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 있고, 탄산이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① 우선 삼하1장을 보면 사울왕이 자살한 것을 도운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그 소식을 말하는데, 생각해 보라. 사울이 자결을 했는데 얼마나 교통사고냐? 그래서 그 일을 지나가는 장군에게 요청한다. “내가 너무 고맙서라니 내 숨을 빨리 끊어달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교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죽인다. 이것을 다윗에게 와서 보고했는데, 다윗은 이 사람을 죽여 버린다. 지금 보면 이것도 다윗에게 있었던 잘못된 각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다. 너무 사울을 사랑하고 보호했는데, 사울의 생명은 소중하고, 이 군인들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은 것인가.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못 지은 게 아니었겠는가. 나는 그렇게 새롭게 목상을 해 보게 되었다. 진리는 아니고, 성경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② 삼하11장에,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사건이다. 아이러니한 사건이다.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신 것이다. 남의 아내를 취하여 얻은 첫째 아들은 죽었지만, 둘째 아들은 솔로몬 왕이 되었고,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않나. 인간에게는 모두 허물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정말 새롭고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지 않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참 복음이다.

③ 삼하24장에, 다윗의 큰 실수가 인구를 조사하는 불신앙이었다. 처음에는 혼자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는데, 다윗이 치매가 왔는지, 말년에 인구 계수를 한다. 우리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가서 계수를 하라고 한다. 요압은 직언을 잘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작은 군대도 더 크게 하실 것인데, 이제까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야 숫자를 세려고 하십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그래도 하라고 하니, 요압은 빠져 버렸다. 조사를 대충 해서 가지고 온다. 그러나 이것은 요압도 잘못이다. 그러다고 해서 그만둘 게 아니라 끝까지 충성해야 했다. 결국 요압도 죽임을 당하지 않나. ‘나는 옳다, 나는 정당하다’ 하는 것 자체가 큰 잘못임을 몰랐던 것이다.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나가고, 내가 해야 할 충성된 역할을 끝까지 해야 한다. 여러분, 전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내가 어릴 때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목사님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셨다. 전체적인 흐름 대신 일부만 하고, 그것도 성경과는 상관없이 딱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각인시

켰다. ‘나는 꼭 전체 이야기를 해야겠다.’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 열 번 이상 읽으면서 나의 레마를 찾아내시기를 바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빛나는 시절이 있었다.

① 첫째는 목동 시절의 믿음이었다. 나는 초등학교 때 가졌던 믿음이 목사 된 지금보다 훨씬 순수한 것 같다. 지금은 이상한 것을 많이 봤다. 사람을 잘 안 믿게 되었다. 너무 더러운 것을 많이 보게 되었다. 지금도 기도하면서 성령인도를 받지만, 이전 아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너무 더러운 것을 많이 보니까, 더 기도해야 한다. 나는 어린 시절, 목동 시절이 그렇다. 어린 시절에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믿음이 각인되어서 평생 따라가야 한다.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②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보여 주었다.

③ 사울왕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으로 도와주었다.

④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반하는데도 부성애를 보여주었다. “내 아들 압살롬!” 요즘에는 이익 앞에서는 부모도 형제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부성애를 지켰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사랑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점점 없어지는 악한 시대 아닌가? 모성애도 부성애도 없어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사하며 모시려는 것도 없어지고 있다. 이런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⑤ 다윗의 훌륭한 부분이 회개다.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왕이면서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진실을 다해서 회개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도록 회개했다. 그게 다윗이 쓰임받은 이유다. 우리는 남의 잘못만 본다. 그게 선악과 사건, 창3장 사건, 근본 문제의 사건이다.

## 결론

(1) 다윗이 받은 축복과 이유가 무엇인가?

① 다윗이 받은 축복은 먼저 음악적, 문학적 재능이다. 시편을 그렇게 많이 기록했다. 다윗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제일 많다. 나라를 구하는 축복, 왕이 되는 축복을 주셨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축복도 받았다.

② 그러면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목동이었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목상했다. 그러면서 체력을, 믿음을 준비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다윗을 쓰실 수 있었다. 그리고 근본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깊이 뿌리내려져 있었다. 회복을 잘 했다.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했다. 도전하는 자세로 전체를 정복했다. 여러분이 큰 땅을 정복하시기를 축원한다. 언약과 성전을 이해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기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천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세우셨으니, 망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램뎃, 성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언약하고 부추해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2)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무엘하와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① 천명무패, 천명필승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대한민국은,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교회는 반드시 세계복음화할 것이다. 천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② 세상에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충만, 성령충만을 계속 받아야 한다. 천명을 받았으니 사단이 가만히 두겠는가. 음란에, 우상에 빠지게 한다. 패권국가를 통해서 전쟁에 휘말리게 하고, 잔머리와 전략 전술에 빠지게 하고, 줄서기에 빠지게 하고 비굴하게 한다. 그런 율법을 계속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기도충만, 성령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천명을 받았기에 우리는 더욱 든든히 서야 한다.

③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회복의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어떻게, 어느 정도 회개해야 하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으로 각인된 체질을 통해서 현장에 말씀운동이 저절로 일어나고, 37명의 장수와 같은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고, 3천 제자 300교회 1천만 제자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회개하고 개혁해야 한다. 정치 경제 학업 미디어 모든 분야를 정복할 수 있도록 개혁, 혁신, 재창조해야 한다. 단순히 잘못했다 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 나약한 부분을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회복하고 많은 부분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와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와 레마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천명필승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분야가 복음으로 정복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후대가 이 귀한 언약의 메시지를 아로새겨서 멋있는 인물로 평생 쓰임받다가 영원토록 상급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